

場을 利用한 資金調達을 위해서는 資本市場의 動態를 完全히 파악해야 하며 適正政策으로 株價가 上昇토록하여 資金調達能力을 增加시켜야 한다. 資本調達도 큰 問題이나 景氣變動이 심하거나 不透明할때는 資金의 適切한 使用이 重要하게 되어 資產利用에 대한 先進國의 模型을 改善開發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게 해야 한다. 또한 資金計劃과 統制를 위해 豫算制度의 確立이 시급하며 輸出入國으로서의 韓國經濟體制는 企業의 國際化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結論의으로 財務管理의 定着化를 위한 學界의 方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財務管理教科過程의 再整備
- (2) 分析的 教育의 實施
- (3) 韓國企業環境에 대한 實證的 考察
- (4) 財務管理學會의 設立
- (5) 他學問과의 交流
- (6) 企業의 中間管理層의 教育

生産管理의 土着化

金 海 天*

우리나라의 産業化 過程에 있어 實用的 價値의 認識에서 生産管理의 體系化 實踐化가 進行되고 있으나 産業化에 대한 諸般與件의 未備와 未熟으로 問題點이 많다. 現在 生産管理의 土着化는 産業化 課題의 수행을 위해 研究되고 있으나 土着化의 方向設定을 위한 理論的 體系化는 아직도 미흡한 段階에 있다.

生産管理의 必要性—土着化의 必要性: 産業經營의 當面課題는 國際競爭力의 增大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品質向上, 原價絶減, 價格引下等 生産管理의 役割이 必要하고, 土着化가 절실하다. 生産管理는 生産시스템의 特性을 究明하고 이에 알맞는 管理시스템의 設計와 運營, 統制에 관한 體系的 研究가 그 目的이다. 生産管理의 課題는 經營內的으로는 給付生産에必

* 高麗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要한 諸資源의 結合에 있어 生産의 能率(efficiency)과 效率(effectiveness)을 높이며, 經營內의으로는 産業經營에 부과된 課題를 效果的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生産管理發展의 執行條件—土着化의 條件: 現行의 生産管理는 生産의 能率化나 效率化라는 技術的 側面분단 아니라 市場變化和 社會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面도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製品中心(R & D)의 生産管理가 重要視되며, 部門中心의 管理보다는 “시스템 어프로치”와 MIS를 통한 綜合的 效率化를 指向한다. 分析技法도 프로그래밍을 위한 數學的, 確率的 “모델”에 의한 O.R. 技法이 많이 使用된다. 우리나라는 管理基準의 尺度和 資料의 未備성과 不確定性으로 因하여 이러한 技法의 適用이 아직 形式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ZD運動, Q.C. 서클等의 導入, 適用이 시도되고 있으나 最高經營者의 認識이 낮고, 持續的이 못되며 個個人의 潛在的 能力開發을 위한 組織化가 弱하다. 또한 生産시스템의 設計와 選擇過程에서 經濟的 合理化(生産經濟의 原則)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生産管理의 展望과 接近方向—土着化 方向: 앞으로의 生産管理는 技術中心主義에서 環境關聯的, 社會價值關聯的인 評價戰略을 中心으로 進行될 것이며, 이에 “시스템”의 思考와 EDPS의 開發이 加勢할 것이다. 그러나 先進技術의 導入段階에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技術評價戰略이 重要하다. 生産管理가 意思決定理論과 시스템理論에 입각하고 있다는 事實은 不確實하게 變化되는 環境條件에의 適應이라는 觀點에서 重要視된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우리나라 生産管理의 土着化는 Q.C.의 制度化이다. 教育的인 側面에서 볼 때 生産管理의 教育은 I.E., O.R., management science等 主로 機能的 接近方法에 치중하고 있으나, 制度的 接近方法과 併行해야 技術的 合理化와 經濟的 合理化를 통한 科學的 實踐이 可能하다. 또한 生産管理機能과 他機能과의 關聯教育도 必要하며 合理的 思考를 통하여 提起된 問題를 論理的으로 解明할 수 있는 教育도 重要하다.